

암 III/비만				번호: II - H - 4	
제 목	국문	음주관련 특성이 대장의 해부학적 부위별 암발생에 미치는 영향			
	영문	Effect of Alcohol Drinking on the Risk of Colorectal Cancer by Anatomical Subsit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훈재 ¹⁾ , 안윤옥 ²⁾ , 이봉화 ³⁾ , 황대용 ⁴⁾ , Kono S ⁵⁾ , 김동현 ¹⁾ 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3) 외과학교실, 4) 원자력병원 외과, 5) 일본 큐슈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영문	Hun Jae Lee ¹⁾ , Yun Ok Ahn ²⁾ , Bong Hwa Lee ³⁾ , Dae Yong Hwang ⁴⁾ , Kono S ⁵⁾ , Dong Hyun Kim ¹⁾ 1)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3)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4)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5)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College of Medicine, Kyushu University			
분 야	역 학 압	발 표 자	이훈재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0월				
<p>연구목적</p> <p>대장암은 환경적 요인이 병인으로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역학연구에 따르면 동물성지방과 식이섬유 섭취 정도만이 위험요인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음주의 경우도 여러 기전을 통해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난 50년대 후반부터 제기 되고 왔으나 연구방법론,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선호하는 주류의 종류 등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아직 논란의 여지가 크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대장암의 발생증가가 뚜렷하고 음주관련 행태가 불량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음주 특성이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학적 기원과 생리적 기능에 큰 차이가 있는 대장의 각 해부학적 위치에서의 암발생에 대한 음주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자 하였다.</p> <p>연구방법</p> <p>본 연구는 1995년 3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서울소재 3개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595명(결장암 239명, 직장암 356명)을 환자군으로 하고, 같은 기간 이들 병원에서 다른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467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70세로 제한하였으며, 질환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식이, 운동, 음주특성이 변할 수 있는 경우는 대조군에서 제외하였다. 환자와 대조군 모두를 대상으로 입원직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직업력을 포함한 인구나사회학적 특성, 질병 과거력 및 약물복용력, 가족력, 흡연 및 음주력, 식이습관, 육체적 활동수준 등을 파악하였고, 정확한 진단명 등의 확인을 위해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음주특성은 과거 및 현재의 음주여부,</p>					

음주기간, 최근 1년간 5가지 주류(군) 종류별 섭취횟수 및 평균 섭취량으로 조사하였으며 금주자(ex-drinker)는 과거 음주를 하였으나 지난 1년간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음주자에서의 알콜섭취수준은 지난 1년간 각 주류의 종류별 섭취량과 빈도를 이용하여 산출한후 대조군에서의 분포를 고려하여 남자는 삼분위로 그리고 여자는 이분위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연구대상자 1062명 중 남자와 여자는 각각 509명(47.9%)과 553명(52.1%)이었다. 남자의 경우 과거 음주를 하였거나 현재에도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72.8%로 여자에서의 23.3%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또한 현재 음주자들이 지난 1년간 각 주류를 통해 섭취한 알콜의 총량은 남녀 각각에서 14566ml와 5031ml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각 성별로 구분하여 음주특성이 대장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먼저 남자의 경우 음주를 전혀하지 않았던 사람들(non-drinker)을 기준으로 금주자(ex-drinker)와 현재 음주자(current drinker)에서의 전체 대장암 발생위험도를 OR로 나타내면 각각 1.46(0.75-2.85)과 1.62(1.01-2.60)이었고, 결장암에 대해서는 1.79(0.75-4.29)와 1.84(0.96-3.50) 그리고 직장암에 대해서는 각각 1.28(0.60-2.74)와 1.50(0.88-2.56)으로 현재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서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여자의 경우 현재 음주자보다는 금주자에서의 위험도가 다소 높았는데 이들에서의 전체대장, 결장, 직장의 암발생 위험도가 각각 1.50(1.02-2.20), 1.46(0.89-2.40), 1.52(0.98-2.36)이었다. 현재 음주자에서의 알콜섭취수준에 따른 암발생 위험도를 무음주군과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알콜섭취수준이 Q1(low), Q2(middle), Q3(high)군에서의 전체 대장암에 대한 OR는 각각 0.96(0.59-1.58), 1.55(0.95-2.52), 1.67(1.02-2.75)로 알콜섭취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자 음주자들에서는 Q1(low)과 Q2(high) 알콜섭취수준에 따라 각각 1.34(0.67-2.70)과 0.75(0.38-1.50)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해부학적 위치별로 구분하였을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총 음주기간이 10년미만, 10-30년 미만, 30년 이상인 경우에서의 전체대장암 발생 위험도는 남자에서는 각각 1.02(0.30-3.51), 1.23(0.82-2.00), 1.49(0.95-2.35)로 음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암 발생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자에서는 음주기간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